

南北 學術交流의 문제점과 방향

盧 晶 宣

(延世大 文理大)

1. 分斷學術의 形成

남북한은 단일 문화 공동체요 단일 민족이고 단일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단일의 민족 역사와 민족 전통을 소유해 왔다. 학문과 학술 분야에 있어서도 단일한 학술 문화의 내용을 가지고 다양하게 발전시키면서 수천 년을 살아 왔으나, 1910년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식민지 학술 문화와 그것에 항거하면서 민족의 고유성과 자주성을 살리고 유지하며 전수하고자 했던 抗日的·反外勢的 학술 문화가 일면 형성되어 내려왔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은 사실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 의세에 의한 분단으로 직결되었으며, 남한과 북한에는 각각 미국과 소련의 軍事統治에 의한 學術文化가 형성되게 되었다. 일본은 식민지 통치의 수단으로써 문화 통치(culture rule) 방식을 채택·실시하였다. 따라서 한반도의 학술 문화는 내선일체를 실현시키는 수단이고 과정이며 도구가 되었었다. 물론 탈식민지적이며 항일·독립 투쟁의 방법으로서의 학술 문화가 수 많은 탄압 속에서도 진전되었고, 학자들이 강단에서 추방당하는 수난 속에서도 抵抗學術과 民族獨立學術이 지상과 지하에서 이어져 왔다. 1945년 강대국에 의한 분단은 단순한 지리적 국경 형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分斷文化·分斷經濟體制·分斷이데올로기

를 형성시켰고, 분단 문화를 다시 재생산시켜 주는 기능을 해 온 것이 대부분의 남북한 학문·학술·학자들이었다. 따라서 학술 문화의 내용과 학술 문화 활동을 하는 학자, 학생, 연구자들은 의식적으로 혹은 학자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의식을 별로 심각하게 소유하지 못하면서 결국 分斷을 固着化시키는 방향으로의 分斷指向的인 學術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분단 학술'이 형성되게 되었다. 내용적으로 이 분단 학술은 북한의 맑스주의 정치경제 실현 과정의 일환으로 형성되었고, 맑스주의 사회 형성 일환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담지하게 되었다. 진리가 무엇이나 하는 질문의 추구와 실현의 맥락이 맑스주의의 틀로 해석·심화·발전되었다. 그것은 정치나 경제학 분야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전 학술이 총동원된 형태이어서 맑스주의적 음악, 맑스주의적 문학, 맑스주의적 윤리학, 맑스주의적 철학과 역사, 맑스주의적 농학(최근에는 주체 사상에 의한 주체 농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맑스주의적 군사학·공학·경영학·화학·생물학·물리학, 맑스주의적인 신학, 맑스주의적인 의학의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어 결국 분단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였던 分斷이데올로기에 의한 분단 학술로 그 정체성이 굳어지게 되었다.

남한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親美的인 자본주의

경제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적인 학술이 학술 문화 전반에 걸쳐 자리를 잡고 발전하게 된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 구조가 미국·일본·서구라파 등의 제1 세계 정치군사 세력의 팽창 과정 속에서 남한의 학술 속에 침투·심화·고착되어 '資本主義型 分斷學術'이 학술 각 분야 속에 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정치학·경제학은 물론이지만, 공학 분야에서도 자본주의적 건축학·토목공학·화학 등도 고착된 성격을 형성하게 되었고, 의학도 자본주의적 의학의 틀을 형성하게 되었다.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예방하는 데 政治이데올로기를 어떻게 결부시킬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의학의 전 과정은 맑스주의령과 자본주의형의 내용으로 구조와 실천이 달라져 왔다. 북한의 경우 의사는 광산의 광부보다 기본 월급이 적도록 정해져 있다든가, 치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단순히 국가의 성원이면 되지 그 밖의 별다른 자격이 필요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든가 하는 점 등으로 자본주의 체제 안의 의학 연구, 의료의 시혜 과정과 성격이 다르게 발전된 것이다. 남한의 국어국문학·역사학·철학에서 화학·생물학·물리학·군사학·농학·미술·음악·연극·영화 그리고 심지어는 神을 연구하는 신학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자본주의의 토대를 심화·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필자는 신학자로서 특히 신학 부문이 분단지향적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을 지적해 온 바 있다.¹⁾ 이를 분단 신학이라고 명명해 보았었다. 우리는 신이 이데올로기를 초월한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하는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분단이데올로기들에 의해서 분단 경제와 분단 정치 구조가 형성된 속에서 남북 분단 지향적인 신학으로 성격이 굳어져 왔던 것을 다시 검토해야 비로소 신에 관한 학문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南北의 학술은 分斷指向的 學術로 발전되었고, 남북한의 통치 수단과 내용에 부응하는 학문의 성격이 심화되게 되었다. 이러한 기

본 틀 속에서 남북한의 학술 교류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2. 軍事對決과 學術交流

또 한 가지 문제는 군사 문제와 학술 교류의 문제인데, 남한은 교류 우선의 원칙으로 결국 한민족 공동체 동일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1989년 9월 11일 대통령이 국회에서 강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²⁾ 통일로 가는 중간 정경 다리로서 남과 북이 연합(남북 연합)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단일 민족 사회를 꾸린 다음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민족 국가(통일민주공화국)를 세워 통일을 이 땅에 실현한다는 점진적인 통일에의 접근 과정을 밝히고 있다.³⁾

따라서 學術交流는 남한의 교류 우선의 방법의 맥락 안에서 토론될 수 있으나, 북한에서는 우선 군사적으로 대결한 구조를 평화 구조로 바꾸는 것을 주장하여 외국 군대 철수, 군비 축소 등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접근 순서상에서 차이가 있고, 우선 순위를 어떻게 조정·처리하여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先 교류·後 군비 축소 방안, 둘째는 先 군비 축소 및 평화 구조화·後 교류 방안, 셋째는 先 교류·先 군사적 대안이다. 즉 교류와 군사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해 나간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군사 대결을 平和構造로 바꾸는 문제는 1988년 2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① 한반도의 전쟁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서 하루 속히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평화 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남북한 당국과 미국, 중국 등 참전국들이 휴전 협정을 平和協定으로 전환시키고 不可侵條約을 여기에 포함시키

1) 노정선, 통일신학의 향하여 : 제3 세계 기독교 윤리학, 서울 : 한울사, 1988.

2) 국토통일원,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 이렇게 통일하자는 것이다, 1989.

3) 산계서, p.12.

는 협상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 ②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남북한 상호 간에 신뢰 회복이 확인되며, 한반도 전역에 걸친 平和와 安定이 國際적으로 保障되었을 때, 駐韓美軍은 철수해야 하며 주한 유엔군 사령부도 해체되어야 한다. ③ 과도한 군사력 경쟁은 남북한 평화 통일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며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상호 간의 협상에 따라 軍力을 減縮해야 하며 軍備를 줄여서 平和産業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④ 核武器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남북한 양측은 한반도에서 핵 무기의 사용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에 배치되었거나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모든 핵 무기는 철거되어야 한다 등이다.”

남북한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을 위해서는 군사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으며, 학술 교류도 군사 문제와 직접적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이다. ① 이는 양자의 優先順位 문제가 그 하나이고, ② 다른 하나는 학술 교류가 군사적으로 이용되어서 군사 대결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형태로 될 수 있고, 학술 교류가 軍事文化를 더욱 강화시키고 分斷地形的인 分斷文化를 심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방향과, ③ 그와는 정반대로 학술 교류가 군사 대결 문화를 平和文化로 전환시키고, 평화 구조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있다는 점이다.

위의 ‘선언’이 군비 축소와 미군 철수 문제로 대단한 반대 토론을 받은 것이 사실이나, 1988년 7·7 선언 이후 노태우 대통령은 ‘군비 통제’를 추진할 것을 언급하였고, ‘평화 협정과 불가침 조약 체결’을 위해 북한과 토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군 철수 문제는 최근 한·미 합동으로 단계적 철수 정책이 발표되어 우선 약 5천 명의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이는 결국 1988년 2월 29일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의의 선언이 정부 측에서 긍정적으로 수용

하고 있는 현상을 그 발표 2년 후인 1990년 2월에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두 가지 사항을 분명히 정리할 수가 있다. 그 첫째는 순서의 면에서 先 교류·先 군사 대결 구조를 平和構造로 바꾸는 일이다. 학술 교류를 먼저 실시한 다음에 군사 대결 구조를 평화 구조로 바꾸는 것이 아니며, 군사 대결 구조를 평화 구조로 먼저 바꾼 후에 학술 교류를 실시하자는 순서도 아니다. 학술 교류와 군사 대결 구조를 平和構造로 轉換시키는 作業을 同時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점이다. 둘째는 학술 교류의 내용이 분단지향적이며, 군사 대결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되며, 반대로 統一指向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平和構造를 定着시키는 방향으로 진전시켜 군사 대결 구조를 점진적으로 和解·平和의 構造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러한 방향이 추진되도록 어떻게 ‘보장’ 장치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현대의 전쟁 개념은 전면전(total war)의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학술은 전쟁에 이용되게 되어 있다. 별의 생태를 연구하여 별을 등원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서 적을 섬멸시키는 연구를 할 수가 있다. 「꽃파는 처녀」라는 북한의 가극이 군사적 정복 목적의 일환으로서의 심리전(psychological war)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남북의 언어 연구, 지리 연구, 조류에 대한 연구처럼 전쟁과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분야도 실상 전면전 전략에 입각해서 보면, 모두 군사 전략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음악이나 연극, 신문과 방송 등 어느 것 하나 전면전의 전략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분야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1981년 미국의 뉴 멕시코주에 있는 Santa Fe市에서 작성된 미국 전략에 관한 문서에서는 ‘마약’이나 ‘神學’까지도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미국의 전략적·군사적 패권을 확장시켜 나가는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⁵⁾ 최근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에서의 미

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선언, 1988년 2월, p.9.

경향신문, “駐韓美軍 감축”, 1990년 2월 3일, 3면.

5) Santa Fe, New Mexico에서 작성된 이 문서를 보통 Santa Fe Document라고 부른다. 독일에서 이 문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출판하였다. *Totaler Kriegegen Die Armer*, Kaiser Verlag, München, 1989.

국의 군사 패권 확장 작전은 그 표방으로서 ‘마약 제거’를 들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패권 확장을 위한 ‘빌미’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이 학술 교류를 하게 될 때, 이 학술 교류가 군사 대결을 더욱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학술 교류는 평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하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상태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이 조건 충족을 보장시켜 줄 방안과 장치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류된 학문이 罪事的으로 惡用되지 아니하는가의 여부를 쌍방이 監視하고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감시 체계’를 적절한 구성원으로 조직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감시 조직’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재원이 조달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 감시군’이나 ‘평화 학술 교류 관찰반’ 같은 형태를 UN 같은 조직이나 남북의 자발적·자주적 조직체에 의해서 형성시켜 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2차 대전의 경우를 보면, 고고학이나 문화인류학을 전공한 학자들까지도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사례들이 특히 이탈리아 지역에서 있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 교류가 평화 구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장’을 구체화하는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다. 이 ‘보장’의 바탕이 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뢰의 구축’이며, 나아가서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상태(rapport)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愛情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희생적인 사랑(아가페)’의 관계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상당히 이상적인 목표까지도 설정해야 할 것이다.

3. 學術交流와 信賴構築과 愛情

학술 교류의 전제로 필요한 신뢰 구축과 애정관계(affectionate relation)의 형성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면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 첫째는 人的 交流이다. 高麗大에서 金日成大學生을 초청하여 유학시켜 준다든가 혹은 단기간의 세미나를 합동으로 하는 방법, 서울大 교수

가 집일성대학을 찾아가는 방법 같은 것이다. 둘째는 방문·초청 등의 인적 교류를 하지 않으면서 學術資料를 交換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평양에 있는 神學校(3년제 과정)의 요청에 의해서 남한의 神學 서적이 제3국(제네바 혹은 미국) 등에서 발송되어져서 그곳에서 교과서로 혹은 학술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남한에서는 북한 학술 서적들이 대량으로 출판되고 있어서 저점에서 구입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 중에는 불법적인 거래도 있다. 필자는 소련의 과학아카데미에 한국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200여명이 상이 된다고 하는 보고를 1973년경 하바드대학교의 Yenching Institute의 Korean Studies Section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알게 되었다. 당시 소련 아카데미 원장은 한국인 3세로서 하와이를 방문한 길에 하바드大學의 초빙으로 세미나 발표를 하였는데, 완벽한 함경도 사투리로 소련에서의 한국학 연구 실태를 소상하게 발표해 주었고 영어 통역은 김정원(Alexander)씨가 담당했었다. 제3지역을 중간 지역으로 선택하여 학술 교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미국의 경우 Harvard 대학, 뉴욕에 있는 Columbia大學, 샌프란시스코의 University of California in Berkeley, Stanford, Hawaii University 등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 미국은 북한인의 여행을 뉴욕 42번가에 있는 국제 연합 건물에서 50마일 이내로 규제해 왔다. 따라서 이 지역권 이내가 학술 교류를 위한 적절하고도 합법적인 지역으로 선발될 수도 있겠다. 물론 미국 국무성이 북한 학생들을 유학생으로 초청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것의 실현 시기는 아직도 미지수로 볼 수 있다. 동구라파에 유학중이던 수천 명의 북한 학생들이 1주일 내에 소환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는 단순하게 볼 수 없다. 그러나 지나간 수십년 동안 북한 사람이 외교를 목적으로 뉴욕시를 방문하는 것은 가능했기 때문에 (UN 대표부로서) 이 길을 이용하여 학술 교류, 학자들의 만남, 세미나를 주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수 많은 세계 학술 대회를 통해서 이미 접촉들이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며, 세계 대회들 속에서도 남북 학술 교류가 이루어져 온 것도 사실이었다.

문제는 비교적 항구적인 '교류 베이스'를 설치하는 것인데, 필자의 분석으로는 UN 건물 50마일 이내를 설정하여 접촉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콜롬비아大學이 [좋은 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곳의 East Asian Library와 International Studies Library에는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많은 북한 서적을 이미 소장하고 있으며, 한국사 교수인 Gary Ledyard 이외에도 한국인 도서관 사서들이 있어서 영어나 구사가 자유롭지 못한 북한 학자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면서도, 현재의 미국 국무성의 합법적 허락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물론 日本도 중간 다리로서 '교류 베이스'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교류에 필요한 경비 등도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본다면, 日本은 이 점에서 특히 유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다.

판문점 지역에 학술 교류 베이스를 설치할 수 있다면 대단히 편리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소련의 모스크바대학, 중국의 연변 지역 대학과 북경대학 등의 지역도 학술 교류를 위한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모스크바대학은 이미 延世大와 자매 결연이 이루어져서 근간에 교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신뢰 구축과 애정 관계의 형성에 제일 좋은 것은 직접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노래하고, 같은 건물에서 잠을 자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베이스'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직접 만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로 자료를 교환하는 것인데, 필자는 생물·무생물 등을 우선 서로 교환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비교적 쉬운 길이라고 생각한다. 실험용 쥐, 연구용 식물들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신뢰 구축'을 위해서라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토종닭, 토종송아지, 토끼 등의 가축이나, 가족처럼 대하는 동물들을 교환하는 것이 좋다. 증오와 적개심의 관계를 애정 관계로 전환시키는 심리 치료의 기능을 이러한 애완용 동물들이나 가축들이 해 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애완용 동물들을 서로 교환하여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기르며 연구해 나가면,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걸려 있는 집단적 불안 신경성 분

斷精神病治療에 좋고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며 군사적 대결의 심리 상태를 和解와 平和의 관계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식물의 교환도 특수한 품종보다는 평범한 품종, 즉 개나리, 버드나무, 소나무 등등의 품종 교환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북한에 대단히 부족한 컴퓨터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지만, 신뢰 구축의 측면에서는 개인용 소형 컴퓨터를 다량으로 보내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비디오와 전화 매체를 통한 학술 교류인데, 비디오의 교환이나 공급이 더 우선적으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방적인 기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에 있어서의 학술, 학문 내용, 세미나 발표 등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시설, 녹음 테이프 등을 기증 형식으로 전달해 주는 방법이 쉽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팩시밀리로 현재 북한에 시설이 거의 없거나 거의 이용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나, 시설 자체를 지원하면서부터 교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Conference Call을 할 수 있도록 전화를 개설하여 여러 학자들이 폐쇄된 전화선을 통해서 학술 발표와 토론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경우는 보안을 유지하기가 쉬울 수도 있겠다.

4. 共同의 敵과 共同安保

몰타 회담 이후에 미·소는 공동으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한다. 남북한이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남북 공동의 적을 확인·추적·섬멸하는 연습을 할 수만 있다면, 신뢰 구축의 가장 좋은 길일 것이다. 學術을 통해서 남북한 共同의 生存權을 침해하는 敵을 찾아내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AIDS 같은 질병 연구를 함께 할 수 있겠다. 한반도의 공해는 남북한 주민에게 동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해 연구를 할 수도 있겠다. 방사능과 핵 등으로부터의 공동 생존을 연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면, 학술 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과 화해와 애정 관계 형

성에 도움이 되며 한민족 共同體 형성과 민족의 大同團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구촌을 위협하는 온실 효과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동 연구·공동 대처는 꼭 필요한 것일 것이다.⁶⁾

유럽의 3억의 인구는 공동 안보(common security)를 추구하고 있다. 남북한도 공동 안보를 추구하는 학술 연구와 학술 교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식민지 세력들이었고, 현재는 신식민지 세력들이 유럽 국가들이 추구하는 공동 안보와 피압박 민족으로서의 남한과 북한이 공동 안보를 추구하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더 이상 강대국들의 分斷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韓半島의 共同安保

를 추구하는 학술 연구와 학술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

<參考文獻>

출고, "Human Ecology in a Divided Land", *Reformed World*, Spring 1989,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Geneva.

"한반도 평화와 통일—정책성명—", 1989년 7월 28일, moscow, World Council of Churches, 民族統一促進會 편, 民族統一, 1989년 11·12월호, pp.53~57.

金治中·盧重善 편저, 現段階 諸統一方案, 서울: 한백사, 1989년 12월.

6) '90년 3월 5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는 전 세계 교회의 대표 약 1,000 명이 모인 가운데 잠실체육관에서 '정의, 평화, 창조의 질서 보전 대회(Justice, Peace, Integrity of Creation)'가 개최된다. 여기서 분단 문제와 공해 등 공동의 적 추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주최는 World Council of Churches이며, 이에 관한 각종 학술 문서가 나와 있다.